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비교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心理治療學科

金 良 華

2019年 6月



#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비교

指導教授 金 民 浩

金 良 華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年 6月

김양화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명호 (인)  
위 원 송재홍 (인)  
위 원 김민호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9年 6月

Comparison of Family Life of Two Korean Men  
Married to Immigrant Women

Yang Hwa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in Ho Kim*

Thesis director, Min Ho Kim, Prof. of Psychotherapy

*민 호 김*

(Name and signature)

*June, 2019*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iv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	4
II. 이론적 배경 .....	5
1. 국제결혼과정 .....	5
2. 문화적응 스트레스 .....	7
3. 다문화가정에서 한국남성의 역할갈등 .....	10
III. 연구방법 .....	12
1. 연구 참여자 .....	12
2. 자료 수집 .....	15
3. 자료 분석 .....	16
IV.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비교 .....	19
1. A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	19
2. B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	25
3.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	31
4.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 부여하는 의미 .....	51
V. 논의 및 결론 .....	57
1. 논의 .....	57
2. 결론 .....	61

참고문헌 .....	63
부록 .....	68
<부록 1> 연구 참여자 동의서 .....	68
ABSTRACT .....	69

## 표 목 차

<표 II-1> 외국인과의 혼인, 2007-2017년 .....	5
<표 II-2>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 2015-2017년 .....	6
<표 II-3> 문화적응상태 .....	9
<표 II-4>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내용 .....	11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	13
<표 III-2>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18
<표 IV-1>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52

## 그림 목 차

[그림 IV-1] 갈등을 유발하는 10가지 인지 왜곡 .....	41
[그림 IV-2]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유사점의 중심의미 .....	53
[그림 IV-3]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차이점의 중심의미 .....	55

## 국문 초록

#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비교

김 양 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이주여성과 결혼한 A남성은 가정생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 둘째, 이주여성과 결혼한 B남성은 가정생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 셋째, 두 남성의 가정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넷째, 두 남성이 가정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2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개월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은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자녀 관계에서의 경험,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까지 총 네 가지로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비교사례연구로,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가정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유사점에서는 두 가지 중심의미가 드러났다. 첫째는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삶'이며, 둘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는 삶'이었

다. 차이점에서도 두 가지 중심의미를 확인하였다. 첫째는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정서 상태나 자녀 양육과 관련한 내용이나 이에 대한 개입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이주여성과의 결혼한 한국남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개인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여성과의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타문화 수용 여부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한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부부 또한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이에 어떻게 문화 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 이주여성, 국제결혼, 문화적응, 역할갈등, 가정생활 경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 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특히 제주 사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혼인 건수는 매우 증가하지 않는 것에 비교해, 외국인과의 혼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3%를 기록했다(통계청, 2018).

그중에서도 국제결혼의 많은 수는 이주여성과의 한국남성의 결합이며,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상호신뢰와 사랑보다는 국내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거나, 한국여성에 대한 실망감, 부모나 친지에 이끌리는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송병찬, 2006). 연구자 또한 임상심리사로 근무하며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자주 접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어머니는 대부분 이주여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대신 아동에 대한 정보를 빈약하게나마 기술할 수 있었으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아 학교나 보육시설의 교사가 아동의 발달과정을 대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본 이주여성 대부분 한국생활에 충분히 적응하고 한국어에 능숙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버지 또한 적었다. 이에 자연스레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주여성과의 결혼한 한국남성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결혼하는 남성에게 비교해 더욱 역할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 다중적인 역할 수행이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한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가 존재하였다(최윤정, 김계현, 2009).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의 경우에도 경제적 책임과 함께 가정 내에서도 자녀 양육과 이주여성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하기에 유자녀 여성에 버금가는 역할 긴장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이주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크다. Satir는 가족이란 상호작용적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며 성장과 생존을 위한 욕구를 교환하며 자아존중감 또한 획득되는 장소라고 보았다(이신혜, 2005). Satir의 의사소통이론에서는 간접적이고, 모호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정적 의사소통은 가족의 관계와 규칙을 경직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서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며 많은 부분 교집합을 이룬다. 이에 다른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던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사소한 몸짓에서도 다른 해석을 보일 수 있다(Morris 외, 1979). 다문화가정에서는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신뢰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홍영숙, 2007). 실제 다문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상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손유자, 조춘범, 김정화, 2018),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아질수록 부부갈등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다(이현우, 2011).

현재까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는 이주여성인 모(母)의 정서 상태 및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정서를 연관 짓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이 부모 역할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으며(강복정, 강기정, 박수선, 손서희, 2016), 김낙홍 외(2015)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또래 유능성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 간의 유대감이나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이엄지, 이채원, 2014). 최근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이 또한 한국 남편인 배우자가 이주여성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김소희, 노운구, 2018). 물론 모(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대해 간과할 수는 없으나 다문화가정에서 모(母)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부(父)의 역할이다. 다문화가정에서의 부(父)는 다중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의 한국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는 적으며 일반가정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양육적 역할수행이나 자녀와의 애착, 양육 태도 및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들이 양적인 접근방식으로만 다수 발표되고 있다. 그중 한현희(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이 일반가정의 아버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더 낮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또한 잘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차별감이 스트레스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연관성이 있다는 양적 연구(최예지, 2015) 결과가 있다. 이 외에 장운정(2007)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양적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개개인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은 부족하였다. 천지향 외(201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생애사적 접근방식으로 다루었으며, 이영희(2010)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에 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갈등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결혼적응만을 주된 주제로 하였기에 이 또한 한국남성이 이주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더하여 이주여성 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맥락에 따른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들의 삶을 자세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합한 다문화가정이라 하여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다양성을 주목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다양한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문제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결혼생활과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들이 경험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과 결혼한 A남성은 가정생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이주여성과 결혼한 B남성은 가정생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셋째, 두 남성의 가정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넷째, 두 남성이 가정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으며 특히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또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그들의 어려움에 어떠한 개입이 도움이 될지 파악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의 적응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맥락에 따라 같은 국제결혼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정생활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소수의 다문화가정 한국남성에 대한 기록이며 개인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합 및 양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제결혼과정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진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제결혼 중 다수는 한국 농촌 지역의 남성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여성과 결합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와 다른 예도 있으나 아직도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한국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합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6배 이상 많다(통계청, 2018, 표 II-1).

<표 II-1> 외국인과의 혼인, 2007-2017년

(단위 : 천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대비	
												구성비	증감률
총 혼인건수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100.0	-6.1
외국인과의 혼인	37.6	36.2	33.3	34.2	29.8	28.3	26.0	23.3	21.3	20.6	20.8	7.9	1.2
한국남자+외국여자	28.6	28.2	25.1	26.3	22.3	20.6	18.3	16.2	14.7	14.8	14.9	5.6	0.3
한국여자+외국남자	9.0	8.0	8.2	8.0	7.5	7.7	7.7	7.2	6.6	5.8	6.0	2.3	3.4

출처: 2017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이주여성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며, 그 중 특히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의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이민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여성가족부, 2018). 이러한 패턴은 한국 사회에서 지역 간의 성비가 상이함에 따라 결혼 수급에서도 불균형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 또한 가파르게 증가함도 원인 중에 있다(오금숙, 2013). 이러한 결혼은 결혼부적격자라는 사회의 인식이나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서로의 신뢰의 문제로도 쉽게

직결된다는 오금숙(2013)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처럼 국제결혼은 자신과 상대방과의 상호신뢰 및 애정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발달과업 중 하나인 결혼이라는 과정을 완수하기 위함일 수 있으며 더하여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 부부 모두 결혼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혼 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교해 높아, 국제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II-2>.

<표 II-2>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비중, 2015-2017년

(단위: 건, %)

	전체(A)			다문화 이혼(B)						다문화 비중(B/A)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년대비		2015	2016	2017	
							증감	증감률				
전 국	109,153	107,328	106,032	11,287	10,631	10,307	-324	-3.0	10.3	9.9	9.7	
서울	18,911	18,386	17,576	2,304	2,136	1,982	-154	-7.2	12.2	11.6	11.3	
부산	6,757	6,981	6,740	487	492	483	-9	-1.8	7.2	7.0	7.2	
대구	4,557	4,428	4,432	325	331	341	10	3.0	7.1	7.5	7.7	
인천	7,278	7,256	7,131	699	695	649	-46	-6.6	9.6	9.6	9.1	
광주	2,875	2,842	2,721	248	221	202	-19	-8.6	8.6	7.8	7.4	
대전	3,024	2,917	2,890	235	222	218	-4	-1.8	7.8	7.6	7.5	
울산	2,432	2,542	2,534	202	222	233	11	5.0	8.3	8.7	9.2	
세종	330	345	469	36	33	42	9	27.3	10.9	9.6	9.0	
경기	28,343	27,249	27,434	2,963	2,841	2,790	-51	-1.8	10.5	10.4	10.2	
강원	3,522	3,512	3,302	248	260	247	-13	-5.0	7.0	7.4	7.5	
충북	3,530	3,487	3,510	352	308	351	43	14.0	10.0	8.8	10.0	
충남	4,793	4,734	4,894	539	554	503	-51	-9.2	11.2	11.7	10.3	
전북	3,794	4,007	3,729	442	447	356	-91	-20.4	11.6	11.2	9.5	
전남	4,067	3,984	4,038	469	481	509	28	5.8	11.5	12.1	12.6	
경북	5,393	5,428	5,555	494	538	521	-17	-3.2	9.2	9.9	9.4	
경남	7,445	7,555	7,432	668	653	664	11	1.7	9.0	8.6	8.9	
제주	1,490	1,584	1,567	170	133	160	27	20.3	11.4	8.4	10.2	

출처: 2017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하지만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도 적응성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출신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문화적 유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혼의 방식에 따라서도 적응의 문제가 상이할 수 있다. 실제 정기선(2008)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언어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정체감의 차이도 존재한다는 연구(장인실, 2013)도 있어,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합한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적응과정에서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함을 짐작할 수 있다.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이주여성과 한국남성 모두 서로의 문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의 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겪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으며 변화의 과정 중에 다양한 자극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민자, 2019).

Lazarus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함께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차원의 적응을 언급하였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적응 모두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에게 필수적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며, 특히 한국 문화권으로 오롯이 들어와 적응해야 할 환경이 대부분인 이주여성에게는 더욱 흔할 것이다. 하지만 타 문화권의 배우자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남성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과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 존재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성격으로, 외향적이고 민감한 성격에 비교해 권위주의적이거나 완고한 성격, 자민족 중심주의의 성격은 심리적 적응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지요소이다. 사회적 지지가 탄탄할수록 적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특정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이다.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높고 의사소통 능력 또한 발달한 경우 적응이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 시 사회에서 점유하는 위치이다. 사회적 환경에서 적절히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험할수록 적응 수준이 높으나 반면에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적응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적응에 대해 스트레스 대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유사하게 일차적 대처와 이차적 대처전략을 구분 지었다. 일차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의 불리한 특성을 변화시키려 과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전략이다. 이에 비교해 이차적 대처전략은 행동보다는 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시각과 평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일차적인 대처는 자신에게 환경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차적인 전략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숙, 김희재, 2014).

또한, Berry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구분하였다 <표 II-3>. 첫 번째 차원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 유지 여부이며 두 번째 차원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여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이며,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화’라고 하였다.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분리’라고 하였고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변화’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남은 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주변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장온정, 박정윤, 2009). 실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성은 대체로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관습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윤형숙, 2004).

<표 II-3> 문화적응상태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여부	
		유지함	유지하지 않음
자신의 문화가치, 특성 유지여부	유지함	통합	분리
	유지하지 않음	동화	주변화

Berry와 Kim(1988)은 개인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하였을 때 겪는 문화적응의 과정을 시간 경과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기도 하였다. 첫째는 접촉 이전의 시기(precontact phase)로, 이 시기는 새로운 사회로 이주를 결심하도록 하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접촉하기(contact phase)로서,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 초기이며 새로운 문화에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다. 셋째는 갈등기(conflict phase)이다. 이 시기는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이주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주 국가의 문화적 압력이 갈등을 야기한다. 넷째는 위기기(crisis phase)로, 갈등기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 그것이 축적되어 가정불화 뿐만 아니라 공격 행동 및 알코올 문제 등 다양한 행동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적응기(adaptation)로, 갈등과 위기를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 단계이다. 강화(2018)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환경이나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각기 적응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정식(2014)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된다고 보지 않고 두 문화의 만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고 원래 문화의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 보았다. 이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들의 적응과정에서 필수적인 개념이라 하였다.

이처럼 문화적응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충돌이라 할 수 있으며, 적응의 다양한 과정을 겪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적응으로 나아간다 할 수 있다. 이는 이주자 뿐 아니라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에게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다문화가정에서 한국남성의 역할갈등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하여 일반가정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이며,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우자를 대신해 여러 역할을 도맡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한국문화에 생소한 이주여성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남성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동반되어 이주여성인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에 더욱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도 한국남성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적절한 자녀 양육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상당하다고 한다(정수경, 2011). 게다가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여 양육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아직도 양육의 주체는 어머니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 좀 더 능동적인 양육 태도는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허주현, 2015). 실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며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광웅, 이인, 1998).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게 되면 일반가정보다 자녀에게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진숙, 2007). 이에 양육에 대한 방법 교육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적절히 해소된다면 양육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 아버지의 심리적 지원은 부족하다.

실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

아 종합지원센터,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내용 또한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의 관계 증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버지도 이러한 의도를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최경운, 2016). 현재 가장 대표적인 교육은 아버지 교육으로, 아버지 역할 지원 교육이나 아버지 모임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적응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적응과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이현아, 2018). 최근 들어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수 또한 늘고 있으나, 아버지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 자세한 사항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내용**

사업영역	기본사업	비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노년기 부부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부부갈등 해결지원, 이혼위기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긴급돌봄지원, 자녀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교육, 상담(정보제공+초기상담→전문상담), 돌보미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아버지모임,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자 연구 동의와 참여과정

질적 연구는 무선 표집 방법을 통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음에 따라 의도적인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며 연구자와 석사과정 동기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한국 아버지 두 명이 연구에 응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모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행복 씨앗 양성평등 부부학교 프로그램<sup>1)</sup>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의 목적은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및 가정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인터뷰 전 전화 연락을 하여 연구자가 수행하려는 연구에 대해 다시금 설명하였고, 이에 흔쾌하게 수락하여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다. 두 명의 한국 아버지를 각각 2018년 12월 8일, 12월 15일에 만났으며, 그중 한 분은 이전에도 인터뷰해본 적이 있다며 연구자와의 만남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두 분 모두 연구자와 초면이었으나 연구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의도와 내용, 인터뷰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읽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 2) 연구 참여자의 배경 및 연구 현장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2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아버지

---

1) '행복씨앗 부부학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이혼위기를 함께 극복한 가족들에게 가족 치료 및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족의 역량강화를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이주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남성을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이름	나이	학력	직업	부인		자녀		참고
				국적	나이	성별	나이	
A남성	65	전문대졸	사업	필리핀	55	남	16	중도 입국
B남성	54	고졸	관리	중국	38	남	6	국내 출생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맥락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A남성

A남성은 8남매 중 다섯째로 어느 시골에서 자랐다. 그 시절의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뿐 아니라 가정 내 많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형제들 중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에게 순종적이었던 A남성은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일 중 일부를 맡아서 했다. 교육을 중요시했던 민철 할아버지는 A남성의 학업을 강조하셨고 특히 학비가 저렴한 공립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야만 아래 동생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서였다. A남성은 한 번의 낙방 끝에 공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후 상선회사에 입사하여 배를 탔다.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 급여가 많았기 때문에 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A남성이 책임을 졌다. 배를 타는 일은 출퇴근이 자유롭지도 않았으며 한 번 타면 오랜 시간 배 위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배우자와도 자연스럽게 마찰이 있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했다. 현재의 배우자는 배를 함께 탔던 필리핀 동료 선원의 소개로 만난 필리핀 여성이었다. 1년여간 연애 후 재혼하였는데 결혼생활은 필리핀에서 했다. 재혼하고 다시금 가정을 꾸리며, 이전처럼 배를 계속 타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좋지 않다 여겨 굳은 결심을 하고 배를 타는 일을 그만두었다.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생활하였는데 함께 필리핀에서 지냈던 연로하신 아버지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여 6년 전 배우자, 자녀와 함께 귀국했다. 그때 자녀는 초

등학교 6학년으로, 필리핀에서 태어나 자라서 필리핀어와 영어는 유창했으나 한국어는 쓰지 못했는데 필리핀에서 가족 모두 영어로 소통했기 때문이었다. A남성은 귀국한 후 가스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A남성과 배우자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이나 민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필리핀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고려 중이다. A남성의 부모님 중 아버님은 약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사이 형제와 마찰이 많았다. 급기야 최근에는 서로 연을 끊었다고 표현했으며 이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지금의 가족뿐이라고 이야기했다.

## (2) B남성

B남성은 삼 형제 중 둘째로 권위적인 아버지와 희생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과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말썽을 부렸고 B남성은 그 사이에서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자신도 형의 역할을 도맡아 했다고 표현할 만큼 집안의 많은 대소사를 치러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현재도 형제의 일에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동생에게는 미움이 있으면서도 지금도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다. 첫 결혼은 둘 사이 문제로 인해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두 딸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클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주었으며 현재도 대학생인 막내에게는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아내는 중국인으로, 마사지 가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애정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커 결혼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분쟁이 많았다. 게다가 처음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의 한국어가 다소 늘었을 때는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했다. 이혼까지 생각하여 간 법원에서 가정센터 프로그램을 권유받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모두에게 고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현재 부부간 트러블은 초반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서로 싸움을 회피하는 때도 많다고 한다. 이에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지원이는 현재 6살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 다소 말이 느렸다고 한다. 부부 모두 지원이에 대한 애정이 높고 앞으로 지원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많다.

##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연구자의 판단을 유보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연구 참여자가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들이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면밀히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중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의 경험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신뢰롭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바, 인터뷰 전 전화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첫 인터뷰 시에도 다시금 연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에 임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면접, 관찰, 문헌 등의 질적자료에 의존하는데, 이는 복잡한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료의 삼각측정에 충실하기 위해 인터뷰와 관찰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참여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대상자 선정 작업이 있었으며 2018년 12월 2주부터 2019년 2월 4주까지 각자 세 번씩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또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초에 추가 전화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물음으로써 지정해 준 장소로 방문하여 1~2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방식은 연구자와 동료연구자가 함께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하고, 인터뷰 후에는 동료연구자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함과 같이 교차검증과정을 거친 후 다음 인터뷰에 참고하였다.

자료 수집의 많은 부분은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마다 3회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마다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다.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을 주로 하였고, 주제는 크게 어린 시절 자라온 과정, 국제결혼의 과정, 현재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주변의 소음이나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취하고 메모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A남성과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A남성의 배우자와도 인사하고 짝막하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B남성과는 세 번째 인

터뷰 시 B남성 집으로 직접 가, 지원이를 만나고 지원 어머니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B남성과 B남성의 배우자와의 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지원이와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인터뷰가 끝난 후 관찰한 내용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더하여 과거에 참여했던 행복씨앗 부부학교 프로그램 시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참고할 수 있었다. 매번 인터뷰 후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내내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생각, 역할 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청자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였다.

###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질적연구이자 사례연구로, 어떻게 인간의 사회적 경험이 만들어지며 어떻게 사회경험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가를 중시하며,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이에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가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너무 깊이 개입할 경우 발생 가능한 객관성 결여를 경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극적 자세에서 오는 이해 부족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료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Bogdan & Biklen, 2006).

또한,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은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관한 연구로,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김민정, 2016). 더하여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두 개의 사례를 분석하는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ies)를 진행함으로써, 단일 사례와 비교해 더 주장의 근거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인터뷰 전 내용을 전사한 것을 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 외에도 관찰 노트를 분석에 적극적

으로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통합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이주여성인 배우자와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하여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려 노력하였다.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자료를 주요한 정보들의 범주로 코딩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현상학적 연구 과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체험 본질적 구조를 찾아가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지식과 선이해 등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고, 그것들을 명백히 밝혀 괄호 안에 넣고 그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체험의 본질적 요소와 구조에 접근하려 하였다(김영천, 이현철, 2017).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느낌을 얻을 때까지 축어록은 여러 차례 읽었으며, 가정생활과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나 문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례마다 자세하게 삶의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과 어구로부터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공통 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Moustarkas의 절차를 참고한 것으로, 의미 있는 진술과 의미 단위를 기록하고 경험의 본질 도달을 위하여 기술을 전개하는 것이다(John W, 2013). 이에 축어록에서 18개의 소주제를 분류하였고 이를 더 크게 묶어 총 네 가지의 큰 범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범주는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자녀 관계에서의 경험,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네 범주에서 맥락에 따라 공통요소와 차이요소를 구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이 결혼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경험에 따른 의미, 가정생활 경험의 유사점에서의 의미, 차이점에서의 의미로 구분하고 통합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표 Ⅲ-2>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구분	영역	내용
유사점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쉽지만은 않은 재혼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가장으로서의 역할
		배우자와 견해차를 줄이려 노력하기
		당연히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야죠
		결혼생활 및 가정을 유지하는 원동력과 신념
		스트레스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녀관계에서의 경험	아버지와는 다르려고 노력해요
		자녀양육 과정을 의무라고 생각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요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받으며	
차이점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연애와 중매의 차이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문화 차이에 대한 평가
		문화 개방성의 차이
		갈등 조율문제
		전혼자녀와 배우자사이에서의 갈등
자녀관계에서의 경험	배우자의 한국어 습득수준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쓰는 언어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	다른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교류 및 사회적 관계망	

## IV.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비교

2018년 12월부터 연구자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중 한 아버지는 필리핀인 결혼 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한국남성이며, 또 한 아버지는 중국인 결혼 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한국남성이었다. 연구자는 두 한국남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추가로 이주여성인 배우자와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으며, 유사점뿐만 아니라 같은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문화, 언어, 결혼의 방식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정생활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을 한국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 1. A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 1) 원가정 이야기

A남성은 형제 중 다섯째로, 위로 형과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 동생이 셋이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이었다. A남성이 커갈 때쯤 이미 형과 누나는 집을 떠나있어서 부모님이 남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형 둘이도 돈 번다 서울로 가버렸지, 큰 누나는 또 어디 시집간다고 그 옆에 함평이라고 거기 시집가서 살고 작은 누나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주로 엄마 아버지 작은누나 나.... 그 땐 동생들은 성장기니까.... 그 때 복잡하게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기억에 중3때 아버지가 짊어질 지게를 맞춰줬어요. 그걸로 학교도 열심히 다녔지만 학교 다녀오면 엄마아버지 인사하고 일하고.... 그러면 밤 되면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김치 담그라 하면 절구통에 양념 갈아 넣어놓고 그러면 엄마가 와서 하니까 그 맛은 몰라도 시늉은 다 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작은 누나마저 시집가고 없고.... 그러니 혼자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다섯째였지만 A남성은 장남이나 다름없었다. 반항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동생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내가 다 말아야 할 형편이더라고요.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도 공립 해양 전문대학이라고 공립대학은 관비로 다니거든요. 입학만 하면, 거기 가려고 첫 해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예비후보로는 들어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 년간 새마을운동 가서.... 간척사업 보수작업을 하는데, 군 마을 사람들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밀가루를 줬어요. 그때 먹는 건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야.... 아버지가 그 학교를 보내야 동생들을 가르쳐요. 세 남동생이 있으니까.... 그 학교만 나오면 먹고살 거 같아서 다시 도전했는데 다행히 되었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싶다가 우선이 아니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했고 동생들을 가르쳐야 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외국 상선을 탔다. 길게는 몇 달간 배 위에 있는 생활을 했다.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지만 월급이 많았기에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형님은) 운전직인데.... 운전하는데 돈이 없다고 못 주는데, 그때 운전직 해서 사실 동생들 가르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물론 가족하고 떨어져 있지만 한 3~4배, 많게는 다섯 배도 버니까.... 근데 처가 동이가 되나요. 그래갖고 휴가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렇다고 안 보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대학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이혼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가르쳐준다고.... 내 욕심이니까 아버지 뜻도 있지만....

동생들 뒷바라지는 초혼 후에도 지속하였고 이 때문에 전처와의 싸움이 잦았다. 하지만 내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의 A남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 형제를 책임지는 일이었다.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쪽방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 아버지 내 집 놔두고 왜 여기 사시오 하니 형이 나가라니까 나왔다, 그때 사글셋방이라고.... 받아도 돈을 적게 받아요, 전세 얻을 돈은 받고 나와야지, 그래서 당장 형

을 만나려 하니 만나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 나고 개판 치고 만나긴 만났는데 전세 내주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돈 벌고 있고 니들도 가정사는 데 아버지 집이라고 사줬는데 쫓겨나왔으니까....

자신의 가정도 마다하고 형제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아버지는 기존에 살던 곳에 없었다. 가족이었기에 파멸히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홀로 쪽방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그런 아버지와 자신을 외면하는 형의 모습뿐이었다.

그때 당시 12년도인데 요양병원 120만원이더라고. 한 달만 요양병원 모시는 돈만, 근데 거기서 만약 다른 병명이 생기면 다른데 종합병원에 진찰 받아야 하고 하니깐 한 달에 200이 넘게 들어가요. 그땐 내가 필리핀에서 살 때라, 아버지를 2개월 모시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실 수도 없고 그 땐 인천에 아들 집에 있었는데, 나는 2~3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나만 찾고 있고. 그래서 이걸 안 되겠더라고. 아버지 여기서 있어갖고 안 되겠다 여기는 집이 없으니까 필리핀으로 갑시다 하니 처음엔 안가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요양원으로 가서야 해요, 요양병원은 돈이 안 돼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죽어야 해요, 그 뒷날 가니까 그러겠다 필리핀 가자하시더라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책임져야 했다. 이전에 어머니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1500만원의 수술비가 없어 이도 저도 못하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다.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무리해서 필리핀으로 모셔왔다. 이때는 재혼했을 때였는데 아내는 흔쾌히 모셔오라고,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말에 너무도 고마웠다.

그렇게 가르쳐준 동생들이 아버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죽었다고 둘째 동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필리핀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들었다고.... 진짜 충격 받았어요. 진짜 더는 이런 일이 없이 형제들과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끊으려고. 우리 아들딸 여기 처만.... 형제들 일이고 뭐고 일절 안 하려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생각했다. 형제 중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느끼고 아버지를 부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돌아온 것은 비난뿐이었다. 원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을 것이다.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뿐이었다.

## 2) 첫 결혼 이야기

A남성은 두 번 결혼했다. 첫 번째 결혼은 1976년이였다. 한참 배를 탔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동생들 학비, 부모님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쓰였다. 내 가족에게는 충실하지 못했다. 배를 한 번 타면 오랜 시간 집을 떠나있어야 했다.

배를 1975년부터 탔어요. 상선 선원이었어요. 아무래도 배를 타니까 집에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물론 가족하고 떨어져 있지만 한 세 네 배, 많게는 다섯 배도 버니까.... 근데 처가 동이가 되나요. 그래갖고 휴가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전처와는 싸움이 잦았다. 스스로도 소홀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줄 거라 믿었다.

내 마누라한테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 하니까 내가 왜 모시고 사는데, 내가 신랑도 없이 사는데 왜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안 모신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전처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이미 그때는 전처와의 신뢰가 상당 부분 사라져 버린 시기였던 것 같다. 여러 마찰을 지속하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

## 3) 재혼이야기

재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외국 상선을 타면서 자연스레 여러 외국 동료들과 교류했다. 그중 필리핀 선원이 지금의 배우자를 소개해주었다.

기관장을 했는데 1991년부터 혼합승선이 시작되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중 친구 한 명이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내가 혼자라고 하니까 와

이프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한 1년간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지요.(중략) 외국을 다 돌아다녀서인지 필리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재혼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거부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여느 사람들처럼 충분히 연애의 과정을 거쳤다.

결혼 과정에서 막내딸과 직접 필리핀에 가서 만나보기도 했고, 자녀들 승낙도 얻었어요.

초혼이 아니었기에 더 신중했다. 전혼자녀와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첫 결혼에 실패했고 그 원인 중 하나는 내 가족과 함께 있어 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했기에 배 타는 것을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그러겠다 필리핀 가자하시더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모셔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빨리 모셔오라 하더라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때 지금의 배우자는 전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부양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에 힘을 얻었다. 배우자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배우자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아버지한테 여기서(필리핀) 계속 삽시다 하니까, 여유만 되면 한국에서 죽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자식으로 또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처에게 이야기하고 한국에 가서 제주도로 가는 거 어떻냐 하니까 괜찮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A남성의 삶은 희생만 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배우자는 A남성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했으며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A남성의 결정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부분 A남성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름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

#### 4) 자녀 이야기

A남성은 초혼 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들이 모두 장성한 후 재혼하였는데 재혼 시 아들 하나를 낳아 현재 고등학생이다. 전혼자녀에 대해 세세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 왕래는 왕성하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전혼자녀와 현재의 배우자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저도 전처가 아들들이.. 애들이 셋 아닙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데, 그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제.. 우리 큰 아들이 와있는데 큰아들이 막내 아이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할런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고등학생인 자녀는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왔기에 아직도 한국말이 능숙하지는 못하다. 게다가 이주여성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하는지를 알려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전혼자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A남성 또한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요. 378명 중에...뒤에서 두 번째. 그때 외국어 가치고도 쳤는데 102명 중에 101등(웃음). 니 뒤는 누구냐 하니 중국에서 온 학생 이래요. 그것밖에 니는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웃고 넘어가야 해요. 자기는 인정을 해버리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 숫자는 뭘 숫잔지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랬는데 외고 가서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니 뒤는 누군데 하니 중국에서 온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도 괜찮은데 다른 거 영어라도 100점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했는데 안 된대요. 한글 문형을 주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웃음).

앞으로 뭐할래 하니까 통역사를 한대요. 통역사를 하려면 한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형 수준은 되어 한다 그래야 통역을 하지, 영어는 잘 하니까. 통역사 하려면 말이 정확해야 하고 뜻이 정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더 기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도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

막내도 2학년 올라갔는데 대학은 필리핀으로 보내려 그래요. 영어만 잘하니까. 영어로 해서 이쪽으로는 교환학생? 교환학생 쪽으로 해서 한 2년 하던지 능력이 되면, 내 계획을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자가 만난 A남성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과는 사뭇 달랐다. 누구보다도 자녀 양육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전혼 자녀에게도 도움을 청하며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려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2. B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 1) 원가정 이야기

B남성은 삼형제 중 둘째였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크게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이었다. 책임감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력으로 자녀를 부양했고 B남성은 그중 매우 착실한 아들이었다.

자신은 안 먹으면서 조금씩 모아놓고 언제든지 자식들이 부족하다 하면 뒷돈으로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둘째인데 그런 부분이 맘에 안 들었어요... 왜 맘에 안 들었냐, 그니까 같은 자식이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싫어가지고 형하고도 싸움하고 동생하고도 싸움하고 그걸 또 엄마하고도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달랐다.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제들을 감싸주었다. 형이 마약도 하고 감방도 가면서 형의 역할은 오롯이 B남성 몫이었다. 동생도 착실하지 못했기에 B남성은 더더욱 부모님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은 잘 알아주지 않았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형제가 셋이 있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형은 거의 없고 맨날 마약하고 감방 가있고 뭐하고,,, 그니까 진짜 형의 역할을 했다는 게, 형이 진짜 없어서 형의 역할을 하면 좋은데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역할을.... 그니까 형제들 관계에 있어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동생이라는 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 잘 날 없었다. 이후로도 형제들 뒤치다꺼리를 계속했다. 어느 날은 동생이 도박 빚까지 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판방 뛰어다녔다.

동생이 온 거예요.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누구 보증을 썼는데, 빚보증을 썼는데 그게 월급 차압이 들어오고 막 그런다 하면서 말을 하길래.... 은행번호를 줘라, 전화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전화를 하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중략) 그 바다이야기가 한 번 걸리면 숨어서 해요. 나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은 여기가 아니고 이 장소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서 기다려요. 동생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경찰에게 연락을 하죠.

지칠 법도 한데도, 그리고 내 삶에 더 집중하고 많은 부분은 포기할 법도 한데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형과 동생의 사고를 수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형은 감옥에 있었다. 삶이 참으로 버거웠을 것이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땐 큰형은 감옥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경찰이 나와서 같이 그.... 하룻밤을 해줘요.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해서 형은 들어가고 어머니 장례도 내가 치렀고, 그다음에 동생이란 애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답답한 거죠. 제 땀에는 그것도 위로라고 없는 게 좋지~ 이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한쪽에서는 계속 살려고 바둥거리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사고만 치고 그 뒤치다꺼리는 제가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한시름 났고요. 막내만 하나 남은 건데... (한숨)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금도 여전히 B남성은 형과 동생의 안부를 살피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재혼 이야기

B남성의 초혼에 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진 못했지만, 첫 결혼을 한 후 이혼했다. 재혼 과정에 관해 물었을 때 결혼에 대한 생각은 회의적이었다.

(결혼은)한 번 해본 거고. 더 이상 (결혼)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 그르냐면 결혼을 하면서 부수적인 부분 있잖아요. 자식이 생긴 대던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중략)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고 혼자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중국 마사지를.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중국.... 이혼도 했고 하니까 한 번 만나봐라. 맨 처음에는 호기심 반으로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위장결혼으로 들어왔어요. 위장결혼,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줘라, 나보고. 서류상으로. 그래서 올려주고 결혼을 하면서....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의 과정은 사랑보다는 동정심에 가까웠다. 위장 결혼으로 들어와 다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형편이라는 말에 ‘올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했다고 묘사했다. 결혼 초반에 B남성도 중국말을 전혀 못 했지만 배우자 또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의아하게도 이에 대한 불편함이 오히려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초기에는 되레, 서로 언어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가요. 그리고 한국어도 가르쳐주면서.... 다문화 거기 있잖아요? 한국말도 배우고.... 말을 하면서부터 그게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점점 더 크면 클수록 더 귀찮아지듯이, 배 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것처럼.... 못했을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지금은 하면은 그게 꼭 말장난으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웬만하면 대화가 멀어지는 거죠.

B남성은 배우자와 결혼 초반부터 정말 많이 싸웠다. 자신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전혼자녀와의 마찰도 빈번했다.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B남성은 배우자가 성격이 이상한 것, 배우자가 고쳐야 할 것이 많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 감정을, 자기감정을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야.... 뭔가, 사실은 그거예요. 이

여자도 한 편으론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중국에서 와서 믿는 구석은 나 하는데, 그다음에 이혼하더라도 좀 고쳐주고 싶다. 병이면.

아빠, 나 아르바이트하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아빠, 용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만 줘.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줘야죠. 근데 주면은 이 여자가 기분 좋게 줘야 하는데 말도 꺼내기도 전에 싸움이 되니까 지금도 몰라요. 내가 주는 거요. (중략) 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여자한테 이해심이 많아서 다 밝히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모르게 모르게 넘어가니까 싸움을 앓는 걸로 가는 거지.

중국인이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니까 태어나서 사람의 성격 차이라고 봐요.

이해심이 부족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본인이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너무도 달랐고 이로 인해 싸움이 빈번했고 그럴 때마다 싸움의 끝은 이혼하자는 말이었다. 지원을 낳고도 여러 번 그랬다. 한 번은 정말로 법원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권유받았다.

꼭 말끝마다 헤어져, 이혼해 이거예요. 그게 한두 번 듣다 보면 남자가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 막상 가서는 본인도 아닌 거예요. 헤어지면 혼자잖아요. 그럼 또 가고.... 여기 와서 애를 낳고도 그랬어요. 애를 낳고도 헤어진다고 맘을 먹고 서귀포 지방법원에 갔더니, 가족 상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받아보고 나서 예를 들어 도장을 찍어주면 이혼을 하는 건데, 그럼 제주시에 가정센터가 있는데 부부들 모임이 있다. 서귀포는 작아서 없고. 그래서 간다고 했거든요. 요번에 그 모임을 가진 거고요.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B남성은 많은 것을 느꼈다. 더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 어느 사람도 어떻게 서로 소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B남성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왔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많은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다.

근데 가족 상담하는 데 가면 우리만 얘기 들어줄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쫓아가는데 다만 거기서도 서로 말하는 법이나 그런 걸 배우다 보면 나도 잘 못 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더 갔으면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더 했으면 하는데 예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일 것 같은. 또 다른 팀도 해야잖아요.

저도 농담, 웃기 좋아하는데 이 여자 만나고선 없어졌어요. 자기 만났을 때 농담 하고 하는 걸 아는데 점점 농담도 줄고 사람 만나는 자체도 싫어지고 그랬거든요. 본인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도 어느 면에서 보면 슬퍼요. (중략)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웃지 않고 있다고 느껴요. 딴 사람들 볼 땐 뭐 이렇게 화가 난 건가, 일이 힘들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 근데 그마만큼 웃음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아직도 B남성과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높고 싸움도 여전히 잦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은 어쩌면 그들에게 동아줄 같았을 테지만 더 지속하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리고 지금도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모르기에 같은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B남성은 인터뷰 내내 이해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해의 문제는 개인의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많이 지쳐있는 듯 보였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나가려는 의도는 높은 듯 보였다.

### 3) 자녀 이야기

B남성은 재혼 초기부터 전혼자녀와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에 시달렸다. 전혼자녀에게 양육비 및 생활비를 주는 것이 큰 이유였다.

재혼이다 보니까 그걸 다 얘기 했었고 그담에 애들 있으니까 생활비를 줘야 한 다 얘길 했어요. 딸 둘인데 큰 애는 대학교 다녔고 막내는 중 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한 달에 250씩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애는 졸업을 하고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준거예요. 생활비로다. 그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 끝마다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어느 걸 시작해도 끝은 거기로 가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만 울귀먹어라. 끝난 얘기고. 지금도 사실은 막내가 간호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가 알바도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나 알바 하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아빠, 용돈으로다가 한 달에 20만원씩만 줘.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줘야죠. 근데 주면은 이 여자가 기분 좋게 줘야 하는데 말도 꺼내기도 전에

싸움이 되니까 지금도 몰라요. 내가 주는 거요.

전혼자녀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결혼 전에 했지만 상호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혼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급기야 비밀로 해버렸다고 했다.

(첫째자녀가)결혼.. 얘기하는데 한 달 사이에 개가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우편으로 보내왔대요. 청첩장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왔어요. 왔는데 (배우자가)청첩장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생활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혼자녀의 청첩장을 버린 다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로 또 여러 번 싸움이 있었다고 했다.

재혼해서 낳은 아이는 현재 6살이다. 늦게 낳은 아이라 애정이 각별하다. 전혼 자녀를 양육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또래보다 말이 늦은 아이를 걱정하기도 한다.

하여튼 (아이가) 성격은 좋아요. 근데 엇그저께 어린이집에 가면.... 첫째로 말이 늦었고 지금은 좀 알아듣는데....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B남성이 전담한다. 아이가 갖고 싶다는 장난감을 해외 구매를 해서라도 사주려 한다.

어디를 가면 자꾸 하나 사줘야 돼, 애들이 암만 좋아하는 장난감도 일주일 갖고 놀면 안 놀잖아, 그래서 되도록 안 사주려고, 있는 것도 가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 살려고 하니까, 애들 장난감이 엄청 비싸요, 어떤 거는 해외 직구로 시켜준다니까, 그게 더 싸니까 우리나라 장난감보다 더 싸요.

또한,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나이가 많기에 언제까지 자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

이다.

애가 또 어리잖아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애 몇 년을 더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 그니깐.... 고등학교 때까지만 살아있자. 왜냐면요. 그때 되면 졸업하면 자기 앞가림을 하잖아요. 열아홉 스물 되니까.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큰애도 그렇고 지금 애도 그렇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줄 순 있어도 그 한 끼를 해결해줄 순 있을망정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느끼는 거죠. 개가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데 뭘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B남성은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조바심을 갖고 있는 듯도 했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라는 책임감이 때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았다. 전혼자녀로 인해 겪는 갈등과 어린 막내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 3.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 1)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유사점

##### (1)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 ① 쉽지만은 않은 재혼

A남성과 B남성 모두 이주여성과 결혼한 것은 재혼이었다. 결혼까지의 과정은 서로 달랐으나 이미 한 번 결혼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초혼 시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전혼자녀도 두 아버지의 삶에 영향력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더욱 재혼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커, 재혼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처음 결혼한 건 76년이었고 95년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아들 2명에 딸 1명 있고

요. 재혼은 2000년에 했어요.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2002년생,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예요.

(A남성 인터뷰, 2018.12.09.)

(결혼을)한 번은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해줬는데 우연찮게 살게 됐고....

(B남성 인터뷰, 2018.12.15.)

결혼이 초혼인가 재혼인가는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더하여 결혼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재혼이 많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혼과 비교하면 재혼은 결혼 안정성이 더욱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임춘희, 2014), 다문화가정 자체의 이혼율도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이 결혼생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Ganong, L., & Coleman, M., 1994).

## (2)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 ①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A남성과 B남성의 결혼생활 경험은 매우 달랐지만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공통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A남성은 필리핀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였으나 필리핀은 영어와 필리핀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원가족 또한 영어로 의사 표현이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을 때도 영어로만 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귀국하여 생활할 때에도 영어로 배우자와 자녀와 소통하였고 거주하는 장소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더 필리핀어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길 바라는 것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B남성은 결혼생활을 한국에서 지속하였고 이에 당연히 배우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에 자신이 배우자의 문화를 습득하거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배울 수는 있는데, 나만 보면 자꾸 영어로 해버리니까. 그냥 영어면 다 통하니까 배울 이유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배우진 않았어요. 거기서 살라 그러면, 계속 살

라 그러면... 아버지도 모시게 됐고 마누라도 마누라대로 한국 가서 살고 싶다 해서 안 배운 거 같아요.

(A남성 인터뷰, 2019.01.20.)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저도 욕만 해요. \*\* 뭐 이런 거.

(B남성 인터뷰, 2018.12.15.)

기존 한건수(2006)의 연구결과,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이 이주여성인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기를 바라며 원하는 바를 해주기만 한다면 한국어 실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도 드러나듯 한국남성은 배우자가 한국어를 배우기는 바라지만 자신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② 가장으로서의 역할

A남성과 B남성은 모두 가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더 나아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모두에서 상당한 책임을 가진 모습이었다.

한국이나, 저기나 가장은요. 책임감. 아주 강해야 돼요. (중략) 가장이요, 쉽게 생각하면 가정 깨져요. 가장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A남성 인터뷰, 2019.01.20.)

가장은 우선은 생계를 책임져야겠죠? 역할이라는 게 그래요. (중략)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큰애도 그렇고 지금 애도 그렇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줄 순 있어도 그 한 끼를 해결해줄 순 있을망정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느끼는 거죠. 개가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현대사회에 들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상당수 변화하였고 현재도 가족관의 급격한 변화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성세대는 과거의 전통적 가



족주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편은 곧 가장이라는 생각과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확고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장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통적 가족주의는 무엇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여기며 형제자매나 친족 간의 유대의식이 매우 강하여 이러한 요소가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충선, 1999). 더하여 A남성과 B남성 모두 재혼가정으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한층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 ③ 배우자와 견해를 줄이려 노력하기

서로의 문화 차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각자의 견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견해차로 갈등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소하고 더욱 성장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한테 꼭 물어봐요. 나도 물어봐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라는데 어떻겠냐고, 그러면 당신 생각대로 하라고...

(A남성 인터뷰, 2019.01.20.)

더 많이 이야길 해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문화적 차이나 어차피 문화가 차이나는데 결혼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내가 그쪽에 녹아들거나 그쪽이 녹아들거나 둘 중 하나에 절충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서로 절충해서 살아야지 서로 옳다 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각자의 이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배우자와의 조율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의 차이를 절충하려는 생각도 높으며 이러한 노력이 가정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문화적응 태도가 가정생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장은정(2007)의 연구도 있어, 타문화에 대한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생활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 ④ 당연히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야죠

A남성은 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B남성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B남성의 배우자의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있었다.

내가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 당신 버스 타고 가야겠다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니면 저녁이라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행동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여기 온다 하니까 같이 와서 좀 이따 성가대 가자고 그래서 온 거예요.

(A남성 인터뷰, 2019.02.24.)

많아요. 지금도 한국에 살아서 어느 날 자동차도 운전했잖아요. 자동차 뭐 보험 들어가는 거, 세금 내는 거, 엔진오일 바꾸는 거 남편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아니야 한국에서는 힘들잖아요.

(B남성 배우자 인터뷰, 2019.02.24.)

A남성과 B남성 모두 가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워 복잡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기꺼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 또한 고마움이 큰 것으로 보였고 한국남성의 노력에 이주여성도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해지려 하는 듯하였다. 한국남성의 노력을 알고 상대방도 노력하는 것은 선순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⑤ 결혼생활 및 가정을 유지하는 원동력과 신념

두 한국남성 모두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보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무뚝뚝하고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연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동력이나 신념이 더욱 굳건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나나 내 형제들에 비해서는 훌륭한 분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가정을 지켰고 우리 삼형제 다 결혼도 시켰고, 지금 저는 큰 애만 했는데 아직 막내도 남았고 이쪽에서 낳은 아이도 남았는데, 그렇게 부담이 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해줘야 한다는 거....

(B남성 인터뷰, 2019.01.20.)

우리 속담에 집안에는 애 울음소리가 나야한다, 어쨌든 집안이 번창하려면 애가 울어야 해요. 그리고 집안에 망치 소리가 나야한다,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세 번째는 항상 방에 불이 켜져서 책을 읽는 소리가 나야해요. 밤에 일 저기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자체가 전부 다 계획성 있게....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A남성 인터뷰, 2019.02.24.)

A남성과 B남성의 부모님은 1900년 초중반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였고, 이 시기에 남성은 상징적 권위였으며 이러한 권위를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성은 이래야 한다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A남성과 B남성에 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신수진, 1998). 더하여 가장은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도 견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과거에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생각은 더욱 현재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

#### ⑥ 스트레스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아버지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며, B남성은 스트레스를 꺾꺾 눌러 참는다고 표현하였다.

스트레스를.... 저는 근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별다른 것은 없는데... 제가 지금 술도 안마시고 못 마실 형편이지만, 담배도 안 피고 하는데 그냥... 예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러려니.... 나하고는 안 되니까, 내 생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도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려니...

(A남성 인터뷰, 2019.02.24.)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가정문젠데, 치부잖아요. 그것도 남에게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꺾꺾 눌러 참는 건데...(중략) 나는 술을 못 먹어요. (중략) 그래서 컴퓨터나 카메라 가전제품 만지는 걸로 풀었고, 지금은 그런 쪽은 없고요. 다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 있잖아요. 어차피 애 클 때까지 벌려면 기사자격증 그쪽으로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낮에 여기서 공부하고 밤에는 애보고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한국의 기성세대 남성의 딜레마는 상당하다. 가장의 무게는 가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나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 참고 억압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 당연시되고 오랜 시간 지속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명확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자신도 명료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일상에서의 무관한 자극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심해지는 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문화의 차이 및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오해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줄이고 적절한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시사된다.

### (3) 자녀관계에서의 경험

#### ① 아버지와는 다르려고 노력해요

A남성과 B남성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릴 때 가장의 책임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묘사하였으나 자녀에게는 무뚝뚝하고 엄격함만을 주로 떠올렸다.

그때 뭐 어디 자식들을 위해서 어딜 놀러가고 하는 건 어릴 땐 전혀 없었고 이젠 나이 먹어서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면 우리가 데려가는 편이었고...(중략) 지금 내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려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거고. 많이 놀아주고 애하고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B남성 인터뷰, 2019.01.20.)

내 기억에 중3때 아버지가 짊어질 지계를 맞춰줬어요. 그걸로 학교도 열심히 다녀지만 학교 다녀오면 엄마아버지 인사하고 일하고...(중략) 아버지와 대화는 많이 없었고요.

(A남성 인터뷰, 2019.02.24.)

권위적이며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뚜렷했던 원가정에서 자라온 두 아버지는 모두 자녀에게 살가운 태도를 보이려 노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쉬웠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② 자녀양육과정을 의무라고 생각

A남성과 B남성은 한국에서 이주여성인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실제 A남성은 배우자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며 자녀의 학업 전반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B남성은 자녀의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하기도 한다.

그런 점을 다 이해하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정상코스로 이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선생님도 만나고 학교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걸 내 의무로 생각하고... 병원 가는 것부터 학교... 뭐든 지금도 행정문제를 다 해결하고..

(A남성 인터뷰, 2019.02.24.)

애들 장난감이 엄청 비싸요, 어떤 거는 해외직구로 시켜준다니까, 그게 더 싸니까 우리나라 장난감보다 더 싸요.

(B남성 인터뷰, 2019.02.24.)

B남성은 활짝 열려진 장난감 장을 가리키며 어떤 것을 사줬는지 약간은 속스러워하며 이야기 하였다. 자녀를 위해 직구를 해보기도 했다고 말하며 지원이를 보며 웃었다. 그 모습이 행복해보였다.

(관찰일지, 2019.02.24.)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 중 많은 수는 양육에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또한 미미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김이선 외, 2009) 하지만 두 아버지의 경우 자녀 양육과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에 대한 불만보다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소하게는 장난감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기관을 알아보는 것, 입학을 시키는 것 등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모두 감당해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선생님과의 상담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자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자녀와의 친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때로는 과중하게 지워진 역할에 버거움으로도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한국어가 서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여성의 양육을 상당 부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역할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게 되며 자녀의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일반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영환, 2008).

### ③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요

A남성과 B남성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미래설계의 많은 정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뭐할래 하니까 통역사를 한대요. 통역사를 하려면 한글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너의 형 수준은 돼야 한다 그래야 통역을 하지, 영어는 잘 하니까. 통역사 하려면 말이 정확해야 하고 뜻이 정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랬거든요. 뭐가 아름답냐 이거라, 뜻을, 한글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 표현이 정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A남성 인터뷰, 2019.01.20.)

음악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것도 타고 가야 해요. 돈 버는 것도 타고 가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담에 가르쳐보고.... 그담부터는 자기에게 체질에 맞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김연아 엄마처럼 그렇게는 못 해요. 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맞으면 하다가 한 번 외도도 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걸 좀 생각하는 거예요.

(B남성 인터뷰, 2019.01.20.)

A남성의 배우자는 민철이의 장래 희망을 성취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B남성의 배우자는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한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자연히 A남성과 B남성은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늦은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낌으로써 더욱 부모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박소연(2019)의 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A남성과 B남성이 양육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늦은 결혼으로 얻은 자녀기에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4)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받으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대부분은 배우자가 자신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자신에게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적은 편이다. A남성과 B남성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부부교육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중 부부갈등해소, 자녀들과 화합 등 만남을 자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회원들과 소통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A남성 전화인터뷰, 2019.05.07.)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쫓아가는데 다만 거기서도 서로 말하는 법이나 그런 걸 배우다 보면 나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걸 좀 느꼈구요. 그래서 더 갔으면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더 했음 하는데 예산 때문에 마지막일 것 같은. 또 다른 팀도 해야잖아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갈등을 유발하는 10가지 인지왜곡			
왜곡	내용	사례	
1.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	갈등이 있거나 불편한 상대가 있을 때, 이를 할거나 혹은 백으로 극단화한다. 중간 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똥질파리라고 여긴다. 혹시 관계가 깨지면 전혀 복구할 수 없게 끝났다고 생각해보인다.	6. 침소봉대 혹은 과소평가 남의 용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긍정적인 인점의 가치는 축소한다.
2. 지나친 일반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전의 분노, 갈등, 패배가 또다시 되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여자는 항상 저렇지, 뭐"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7. 감정적 추론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현실을 판단한다.
3. 정서적 역과	남의 잘못에 딱지 붙인다.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나타난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좋은 점은 걸러내거나 무시해 버린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재발 쓰러기 좀 버려달라고 말하는 게 벌써 열 번째야." "더러운 양말을 바닥에 평게해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8. '해야한다' 식 사고 1) 남을 향한 '해야한다'식 사고 남이 '그런 식으로 느껴면 안되고', 자기가 기대하는 식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자기를 향한 '해야한다'식 사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혹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되는 데'라고 생각한다.
4. 긍정적인 면을 낮게 평가하기	남의 좋은 점이나 행동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들 잘 보이는 상대방이 긍정적인 일을 했을 때, "나를 조롱하려는 거야"라고 여긴다.	9. 낙인찍기 상대방에게 고약한 낙인을 찍는다.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어떤 긍정적인 면도 없는 부정적 존재로 여긴다.
5. 지나친 결론으로 파악하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결론으로 파악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10. 탓하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기만 한다. 여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독실술요류 : 자기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유용할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	1) 남 탓하기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2) 역 독실술요류 :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지 않아도 남이 다 알아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기분은 어쨌든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 아냐?"	2) 제 탓하기 자기가 나쁘고 하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에 빠진다. 문제가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 탓만 하기 때문이다.
3) 절제요류 : 사정이 최악이라고 믿으면서,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대방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퍼붓는다. "모두 당신 잘못이야" 그리고 분노로 속물이며 식식거리다. 자신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 "모두 내 잘못이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데에만 힘을 쏟힌다.	

[그림 IV-2] 갈등을 유발하는 10가지 인지 왜곡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씨앗 부부학교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대화' 일부

두 아버지 모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B남성은 이혼 위기로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권유받았고, A남성 또한 타인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처음부터 원해서 받은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프로그램 자체가 생소한 경험이었으나,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황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말하기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나, 본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을 다뤄줌으로써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B남성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매우 가치 있다 회상했고 오히려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음을 아쉬워하고 하기도 하였다.

## 2)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의 차이점

동일한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결혼과정 및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로서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 ① 연애와 중매의 차이

한국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혼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연구자가 만났던 A남성은 직업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현재 배우자도 필리핀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연애를 한 후 결혼하였다. 또한, 결혼 후에 필리핀에서 직접 거주가 이루어졌으며 기간 또한 상당히 여 낮은 문화라 하더라도 직접 체감하며 문화의 다름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배우자의 다름을 배우자만의 다름으로 인식하기보다 문화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B남성은 소개를 받는 절차는 같았으나 연애의 기간이 크게 없었으며 애정보다는 상대에 대한 동정심이나 측은함으로 인해 결혼이 이루어져 애정 및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하였고 그 전까지 배우자가 나고 자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전무 한 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배우자와의 여러 생각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를 수용할 기회는 전혀 없어, 결혼의 시작부터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다.

기관장을 했는데 1991년부터 혼합승선이 시작되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친구 한 명이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내가 혼자라고 하니까 와이프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한 1년간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지요. (중략) 외국을 다 돌아다녀서인지 필리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필리핀에서 살게 되었고 사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고요.

(A남성 인터뷰, 2018.12.09.)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고, 아니면은 위장결혼을 갖다 그 사람이 이혼을 하니까 국적이나 그런 영주권이 없으니까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라, 사실은 그때는 결혼할 마음도 없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실제 이동원(1988)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결혼만족도는 연애혼-절충혼-중매혼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가정의 경우에도 A남성은 연애혼이었으나 B남성은 중매혼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시작부터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2)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 ① 문화차이에 대한 평가

A남성의 배우자는 필리핀 출신이며, B남성의 배우자는 중국 출신으로, 모두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남성은 필리핀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필리핀 지인에게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성장배경과 유사함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기도 하였다. 반대로 B남성은 중국의 문화와 자신의 가치관과의 차이로 어려움을 상당수 경험하였으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존의 지식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보가 전혀 없었으므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툼 또한 많았다.

어려움은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음식을 모두 기름에 구워 먹더라구요. 삶거나 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선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여기는 더우니까, 기름에 하지 않으면 금방 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A남성 인터뷰, 2018.12.09.)

그런 것이 필리핀은 아직은 없어요.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매주 메신저, 스카이프 그거 통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하고 싶으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좀 저기한다고 하면 문자오고 메신저하는 거예요. (중략) 한 3~40분 필리핀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분도 안 돼요. 고런 식의.... 같이 사는 게 그게 대화고 문화적인 저기고. 친밀관계고 그러는데....

(A남성 인터뷰, 2019.01.20.)

중국여자들은 뭐랄까 남자들보다 권위의식이 세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가정 일을 하고 같이 외부에서 돈을 벌망정,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가 다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설거지서부터 밥도 먹여주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많이 싸움했다가 지금은 덜한 편이고요.

(B남성 인터뷰, 2019.01.20.)

A남성은 필리핀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 남편의 전통적 가족주의적 가치의식이 가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도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장운정, 박정윤, 2009). 이에 A남성은 최근 한국이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으며 이기주의로 보인다고도 언급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가정은 여성의 인권이 높고 남자들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으므로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최정인, 2015). 때문에 B남성은 배우자와 일상의 사소한 상황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터뷰 시 B남성은 꼭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만나주기를 원했는데, 누구도 자신의 아내에게 고칠 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음이 그 이유였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한국의 여성, 아내의 역할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를 고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② 문화개방성의 차이

A남성과 B남성은 매우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다. A남성은 대학에 졸업한 직후부터 외항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며, 혼합승선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 규범 등을 습득하고 체감할 기회가 많았다. 이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해왔던 언어 및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B남성은 오랜 시간 건축 시설이나 건축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 생활을 해보거나 다른 문화를 접하지는 못했다. 익숙한 것, 접해왔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에는 상당한 불편함과 두려움, 불안감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을 다 돌아다녀서인지 필리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필리핀에서 살게 되었고 사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고요.

(A남성 인터뷰, 018.12.09.)

내가 영국 캡틴하고 밥 먹으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그걸 느끼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수저를 놓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영국 캡틴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몇 번 냈는데, 영국 캡틴, 파일럿트는 같은 젓가락인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그 이후로 소리 안내고 먹고 나올라니까 내 테이블하고 앞은 아니어도 소리를 안내고 먹을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소리 줄인다고.... 밥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 식사.... 영국 신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나 혼자 굉장히 느낀 거예요.

(A남성 인터뷰, 2019.01.20.)

(중국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배워 본적도 없고.

(B남성 인터뷰, 2018.12.15.)

이해심이 부족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본인이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Robert Zajonc는 상대방과 협동을 전제하여 만남을 거듭할수록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노출효과 이론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당연히 결혼생활에도 이러한 요인이 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Cialdini, Robert B, 2002). 또한, 문화적응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타문화에 익숙했던 A남성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유지한 채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B남성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은 유지하였으나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낮은 '분리'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장온정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 남편이 아내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타문화를 접할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호감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타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남성은 타문화를 접

할 기회가 부재했음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타문화에 대한 긍정성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수 있으며 이에 결혼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B남성은 문화 차이로 인하여 특정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거나 언어 및 비언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단지 배우자의 성격과 자신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 ③ 갈등 조율문제

A남성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 각자의 의견을 강요함보다는 서로의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로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완전한 이해보다는 최대한 존중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B남성도 현재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모습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을 꺼림과 더욱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치우쳐서 따라가죠. 내가 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저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나는 나대로 저거는 저런 습관인 모양이다, 자기 버릇이니깐 그냥 인정을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꼭 해야 한다 그러면 또 원성도 높아지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A남성 인터뷰, 2019.01.20.)

그니까 이제는 들어오면 자는 척해요. 왜, 싸움의 원인을 안 만드는 게 서로 좋으니까. 지금은 방법도 아는 거고. 말을 안 하는 거 그게 최고, 뭐라 하면 말꼬투리 잡고 싸움하자고 드니까 그게 말을 안 하는 거뿐이고 지금으로써는 방법을 안거죠.

(B남성 인터뷰, 2018.12.15.)

이는 결혼 지속기간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A남성은 결혼생활을 거의 20년 지속하고 있으나 B남성은 10년 남짓이다. 이에 문화적응과정에서 적응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조율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욱 시행착오는 잦았을 것이며 현재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전혼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의 갈등

A남성과 B남성 모두 재혼하여 현재의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다. 이에 전처와의 자녀가 있으며 두 아버지 모두 전혼 자녀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현재의 배우자들도 재혼이기 때문에 전처와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여러 공통요소가 존재하지만 A남성에 비해 B남성의 배우자는 전혼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큰 요인은 돈이었다. B남성의 막내딸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어야 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자 배우자의 반발심이 있었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혼 자녀와 관련된 일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게 되는 패턴을 보였다. 나중에는 사소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이와 연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는 저도 전처가 아들들이.... 애들이 셋 아닙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난데, 그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제.... 우리 큰 아들이 와있는데 큰 아들이 막내 아이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할런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A남성 인터뷰, 2019.01.20.)

그니까 나중엔 어디까지 가냐면 애하고 여기서 문자하고 하면 카톡이고 다 지우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누가 얘기해주면, 아니다 이건 사생활이다 이건 부부래도 지켜줘야 된다. 막말로 바람피워서 애인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랑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해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결혼 이주여성에게 배우자와 가족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까운 사회적 자원이다. 특히 배우자는 언어와 문화 학습의 디딤돌이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조연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재에 여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주희, 정진경, 2007). 따라서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는 이주여성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가정생활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 A남성과 B남성 모두 재혼가정으로 경계의 모호성이 상당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또한 다를 수 있음에 따라 더욱 신뢰를 견고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권혁출, 2014). A남성은 결혼 전부터 전혼자녀와 현재 배우자와 충분한 만남을 주선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았으나 B남성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혼이 갑작스레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혼 초반부터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다. 이에 신뢰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서도 마찰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혼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기를 바라는 배우자의 바람과 달리 B남성은 전혼자녀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함이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 (3) 자녀 관계에서의 경험

#### ① 배우자의 한국어 습득수준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쓰는 언어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는 A남성의 배우자와 B남성의 배우자 모두 만나보았다. 문법이 서툴렀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B남성의 배우자에 비해 A남성의 배우자는 처음 몇 마디를 서투르게 한국말로 하고는 이내 영어를 할 줄 아냐며 영어로 물어왔다. A남성 또한 배우자의 서툰 한국어로 인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자기 전공은 컴퓨터, 회계 사무인데 그건 잘해요. 자기 전공도 그러고 대학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고 와서 그걸 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라고 하니깐 그게 어려워요.

(A남성 인터뷰, 2019.01.20.)

(자녀와는 주로 어떤 언어로 대화하나요?) 그렇게....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어를.

(A남성 인터뷰, 2019.01.20.)

2019년 1월 20일 오전 10시에 A남성과 매번 만났던 상담 상담실로 갔다. 상담실을 가로질러 가던 도중 안경을 쓴 다소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분이 나를 향해 수줍게 웃어, 나도 지나치며 가볍게 목례하였다. A남성과 1시간 가량의 면담

이 끝나갈 때, 오늘은 아내와 함께 왔다고 말하며 인사 한 번 하세요 하고 바로 배우자를 불렀는데, 처음 지나쳐 보았던 그 여성분이었다. 약간은 어색한 듯 인사하고는 의자에 앉으며 민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나도 그 순간 예정에 없었던 일이라 당황했다. 연구자가 인사하자 어색한 말투의 한국어로 인사하였는데 이후 연구자와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Can you speak English?” 하고 물었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한층 적극적으로 보였다.

(관찰일지, 2019.01.20.)

B남성은 한국에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한 장소도 한국이었다. 이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보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습득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또래에 비교해 늦었다고 하나 실제로 만나보았을 때 발음은 좋지 않았지만,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제 2언어로 교육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주된 언어는 한국어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주여성인 배우자도 한국어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는 듯 했다.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인터뷰했을 때 조사가 생략되는 등 어법이 때로 맞지 않았지만, 일상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도 한국어로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B남성 또한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A남성은 외항선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의 배우자를 소개받아 연애 후 결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를 낳아 키우는 환경도 한국이 아닌 필리핀이었고 실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필리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는 영어와 필리핀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가족의 의사소통은 영어로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어를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귀국한 후에도 자녀와는 주로 영어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인 배우자도 자녀와 필리핀어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결혼생활의 시작부터 서로 달랐고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또한 다르므로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4)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

##### ① 다른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교류 및 사회적 관계망

A남성과 B남성은 자신과 유사한 가족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을 만나온 정도도 상당히 차이가 컸다. 이러한 요인은 적응 및 만족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듯했다.

\*\*성당이 미사도 영어로 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낯선 이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요. 두 사람 자체의 문제보다는 친정이나 시댁,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자녀고 부부간 문제고요. (중략) 그나마 우리는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필리핀에 제가 집을 하나 사놨어요. 그걸 임대를 해주는데 처남이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알아서 하계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돈을 보내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우리가 아끼면 되더라고요.  
(A남성 인터뷰, 2018.12.09.)

없어요. 이 주변엔 없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도 그렇게 뭐랄까 개인적으로 자기 사생활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편은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B남성 인터뷰, 2019.01.20.)

근데 가족상담 하는데 가면 우리만 얘기 들어줄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쫓아가는데 다만 거기서도 서로 말하는 법이나 그런 걸 배우다 보면 나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더 갔으면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더했음 하는데 예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

(B남성 인터뷰, 2018.12.15.)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관계망이 듯,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적응하고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유사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타인과 만남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교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남성은 오랜 시간 해외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왔고 자신의 배우자와 같은 나라 사람과도 교류함으로써 자연스레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B남성은 결혼 전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다. B남성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다른 다문화가정과 교류가 거의 전무하였다. 그중 같은 중국인 이주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알게 되긴 하였지만 서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꺼렸다.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는 것을 치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다툼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다툼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툼이 지속되고 악화되면서 이혼까지 생각했고 이에 법원을 방문했을 때 가족상담 권유가 있어 2018년에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많은 부부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은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여러 부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어려움과 관련한 코칭이 주로 이루어져, 각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했던 모습에서 자신에게도 고칠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타인과 교류가 없었던 배우자 또한 가족 상담에서 처음으로 여러 부부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 A남성은 결혼 이후 13년간 필리핀에서 살았고 선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필리핀인 동료들 통해 의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필리핀의 문화를 익혀왔던 것으로 보인다. 귀국한 후에는 영어 미사가 이루어지는 성당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다른 이주민들의 적응을 도우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부부의 갈등을 마주하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에 비교해 어떤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 4.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 부여하는 의미

##### 1) 경험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

A남성과 B남성의 맥락을 확인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다른 맥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도 했다. 결혼

과정, 부부관계, 자녀 관계, 사회적 관계로 구분 지었을 때, 그들의 맥락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과정 경험에서 재혼가정이라는 맥락이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연애하고 재혼을 한 것인지 중매로 재혼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른 차이가 컸다. 부부관계 경험에서도 살아온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에 따라 가정생활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여러 문화를 접함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자녀 관계 경험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나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기존에 익숙하게 수행이 가능한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였지만 낯선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등의 낯선 활동에 도전해야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서도 생활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의 차이가 드러났다.

**<표 IV-1>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A남성, B남성 유사점	A남성, B남성 차이점	
결혼과정	- 쉽지않은 재혼	- 연애와 중매의 차이	
경험의 종류	부부관계	-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 가장으로서의 역할 - 배우자와 견해를 줄이려 노력하기 - 결혼생활 및 가정을 유지하는 원동력과 신념 - 스트레스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 문화 차이에 대한 평가 - 문화 개방성의 차이 - 갈등조율문제 - 전혼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의 갈등
	자녀관계	- 아버지와는 다르려고 노력해요 - 자녀양육 과정을 의무라고 생각 -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요	- 배우자의 한국어 습득수준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쓰는 언어
	사회적 관계	- 건강기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받으며	- 다른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교류 및 사회적 관계망

## 2) 유사경험의 의미

유사경험으로 묶인 11개의 소주제를 유사한 의미로 묶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삶’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주의가 내재화됨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높으며 가장으로서 당연히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태도는 이주여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문화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언어권에 적응하길 바람이 가부장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남성은 강해야 한다는 관점이 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무력해지거나 상황과 무관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중심의미는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는 삶’이다. A남성과 B남성은 자신의 역할이 더욱 다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배우자가 서투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도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컸다. 이러한 모습은 가부장적이며 전통적인 생활양식과는 매우 다르지만, 기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하여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부부의 경험을 접하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교육받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고 자신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주제	중심의미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가장으로서의 역할 결혼생활 및 가정을 유지하는 원동력과 신념 스트레스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삶
쉽지만은 않은 재혼 배우자와 조율하려 노력하기 아버지와는 다르려고 노력해요 당연히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야죠 자녀양육 과정을 의무라고 생각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받으며	⇒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는 삶

[그림 IV-2]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유사점의 중심의미

### 3) 차이경험의 의미

차이경험으로 묶인 7개의 소주제를 유사한 의미로 묶었을 때 두 가지의 중심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중심의미는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름 지었다. 두 남성의 차이점은 타문화 인식 여부로, 두 남성은 맥락적으로도 타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랐다. A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외항선을 타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접했고 필리핀에서 결혼생활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현재도 A남성은 다문화 가정을 접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경험도 알게 되면서 ‘나는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B남성은 지금까지 외국문화를 접한 경험이 전혀 없기에 이주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마찰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지금도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가진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지금까지도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여부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의 가치관과 한국의 가치관이 얼마나 유사한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두 남성의 가정생활 적응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중심의미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A남성과 B남성은 재혼의 맥락은 같았으나 결혼의 과정에서 차이가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신뢰의 문제는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더 나아가 전혼 자녀와 배우자 간을 중재함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A남성은 자녀가 한국어에 더욱 유창하기를 바랐지만 배우자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 크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배우자의 바람을 인식하고 민철이의 교육 방향을 잡고 있었다. B남성의 경우 지원이가 아직 어려 언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가 한국어를 익혀야 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지원이도 당연히 한국어를 쓰는 것이라 인식하는 듯했다.

소주제	중심의미
문화 차이에 대한 평가 문화 개방성의 차이 다른 다문화가정 아버지와의 교류 및 사회적 관계망	⇒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것
연애와 중매의 차이 갈등 조율문제 전혼자녀와 배우자사이에서의 갈등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쓰는 언어	⇒ 너와 나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

[그림 IV-3] 이주여성과 결혼한 두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 차이점의 중심의미

#### 4) 두 한국남성의 눈으로 본 가정생활의 의미

A남성과 B남성 모두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상당히 실감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터 가정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며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경험했으며 부모님 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더욱 가장의 무게를 실감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두 아버 지 모두 재혼이기에 첫 결혼생활에 대해 아쉬움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에 현재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가정을 유 지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큰 것 같았다.

결혼 시작부터 쉬운 건 아니었어요. 문화적, 관습적, 일상적인 생활 등 필리핀에 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A남성 전화인터뷰, 2019.05.07.)

왜냐면 문화적 차이나 어차피 문화가 차이 나는데 결혼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내가 그쪽에 녹아들거나 그쪽이 녹아들거나 둘 중 하나데 절충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서로 절충해서 살아야지 서로 옳다 하면 싸움밖에 안 되 니까요.

(B남성 인터뷰, 2018.12.15.)

각자의 환경요소와 생활 배경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가정생활 의 차이도 발견되지만 두 가정의 한국남성 모두 비대칭적인 결혼 관계와 관련한

어려움과는 거리가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었으며 한국남성의 가치관과 문화적응, 너와 나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의 정도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었다. 두 한국남성 모두 내 편은 배우자이며 현재의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높기에 쉽지 않은 결혼생활이지만 점점 더 관계가 나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동일했다. 이에 상대방뿐 아니라 나도 변해야 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기도 했다. 더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도 상당해,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사회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결혼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합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그중 많은 수는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농촌에 거주함으로써 혼기를 놓쳐 사랑보다는 집안 살림을 해주고 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이후 언어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협소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이혼율 또한 높음은 그만큼 국제결혼의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 중 일부는 이러한 패턴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업적이고 비대칭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비대칭적인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남성의 눈으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국제결혼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보다는 이주여성에게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주여성의 한국 문화적응 문제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도 이주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다수였다. 더하여 정서적 요인을 살펴보려는 연구에서도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다수이다(강복정 외, 2016; 김낙홍 외, 2015; 이엄지, 이채원, 2014). 최근에서야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스트레스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양적 연구로 개개인의 경험을 알아보기 부족했다(한현희, 2011; 장은정, 2007). 생애사적 접근방식으로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문화갈등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영희(2010)의 연구도 있었으나 이 또한 한국남성이 이주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더하여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맥락에 따른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채순옥, 한재희(2014)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을 대하는 것에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결혼 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로, 이에 따른 고통감에 주로 집중하고 있어 가정생활을 깊숙이 파악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험을 알아보고 맥락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 두 명을 선정하였고 비교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경험에 따라 이주여성과의 가정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가정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 2명이며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2주부터 2019년 2월 4주까지 약 3개월 동안이었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초에 추가 전화인터뷰도 시행하였다. 자료 대부분은 인터뷰였으며 B남성 인터뷰는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부부의 역동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빠짐없이 전사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각 사례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분석하여 18개의 소주제를 분류하였고 이를 더 크게 묶어 총 네 가지의 큰 범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범주는 결혼과정에서의 경험, 부부관계에서의 경험, 자녀 관계에서의 경험,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이었다. 또한, 네 범주에서 맥락에 따라 공통요소와 차이요소를 구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중심의미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정의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유사점의 상위의미는 두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삶’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주의의 가치관에 따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가장으로서 당연히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반면에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타문화 언어를 배우는 것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중심의미는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는 삶’이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려 노력하였고 자녀를 양육함에도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컸다. 이러한 모습은 가부장적이며 전통적인 생활양식과는 매우 다르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행동이 기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부부의 경험을 접하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교육받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고 자신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차이점의 상위의미도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중심의미는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남성은 맥락적으로도 타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랐다. A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외항선을 타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접했고 필리핀에서 결혼생활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현재도 A남성은 다문화가정을 접하고 있었다. 반면에 B남성은 지금까지 외국문화를 접한 경험이 없고 지금도 동일한 경험을 가진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이주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마찰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에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여부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의 가치관과 한국의 가치관이 얼마나 유사한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두 번째 중심의미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A남성과 B남성은 결혼의 과정에서 차이가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신뢰의 문제는 갈등상황을 대처하는 것이나 전혼 자녀와 배우자 간을 중재함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도 배우자의 바람을 인식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두 한국남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편견과 다르게 비대칭적으로 배우자를 판단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를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동기가 더 우세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이미지와 유사하게 결혼생활의 여러 과정에서 문화 차이나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기존의 생각처럼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큰 노력이 엿보여, 기존에 국제결혼 한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당 부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에서의 두 남성의 사례는 국제결혼 한 두 남녀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특히 한국남성의 시각에서 어떠한 노력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까지도 국제결혼 한 가정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에서야 한국남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양적 연구가 많아, 면밀한 탐색은 부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송병찬, 200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홀했던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결혼생활 및 자녀 관계까지 아울러 조명하려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유사한 경험뿐 아니라 차이 경험을 확인하며 어떠한 맥락이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정생활 경험이 모두 같지 않음 뿐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결과 국제결혼으로 극복해야 할 문화적 요소는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타문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는 결혼적응과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같은 국제결혼이라 하더라도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의 가치관과 유사점이 많았기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적었으나 중국은 남녀평등을 지향하며 여성의 인권이 높아, 남성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사소한 일상에서도 마찰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여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결론

연구자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정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며 가정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경험의 유사점을 확인하려 하였으며 차이요소를 비교하여 어떠한 요소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 하였다.

그 결과,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비대칭적 결혼 관계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한국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같은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이라 하더라도 맥락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경험의 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두 한국남성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국제결혼의 경험이 타문화에 유연해지며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두 한국남성의 사례를 통해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삶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한다면 단일하게 판단하여 동일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짐을 이해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연구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부부간 갈등상황에 심리치료자가 개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 및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근본적 불편감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부부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도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진행

된 소수의 기록이기에 대표성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질적 연구 및 혼합연구, 양적 연구들이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복정, 강기정, 박수선, 손서희(2016).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4(7), 451-459.
- 강화(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권혁출(2014). 재혼모가 경험하는 재혼가족 갈등극복에 관한 현상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낙홍, 백인경(2015).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 사회적 능력,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원 교육학회**, 19(1), 365-384.
- 김민정(2016). 소아암 환자 어머니의 수용전념치료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소희, 노윤구(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 24(2), 74-184.
- 김수정, 이지연(2018).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과의 관계-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회피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3), 3-20.
- 김정식(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결정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사회적 지지·부부적응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김영천, 이현철(2017). **질적연구 : 열다섯 가지 접근**.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이선, 정해숙, 이미화(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숙, 김희재(2014). **이민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 박소연(2019).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부성 적응 과정.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박주희, 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12(4), 395-432.

- 박충선(199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성비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6(2), 211-228.
- 손유자, 조춘범, 김정화(2018). 다문화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일상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와 평화**, 12(1), 80-106.
- 송병찬(2006). 국제결혼에 대한 TV 시사 다큐멘터리의 틀짓기.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금숙(2013). 국제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적응과정. **다문화건강학회지**, 3(1), 27-43.
- 용인경(2003). 기혼유아교사의 가정 내 역할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윤형숙(2004). **국제결혼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글.
- 이근호(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탐구 방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남인(2010).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대한질적연구학회**, 9, 91-121.
-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민자(201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이신혜(2005). Satir의 의사소통이론의 한국가족치료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이엄지, 이채원(2014).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유대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9, 433-455.
-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영희(2010).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과정 에 관한 질적연구 : 경북지역

-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이현경(2014). 다문화 가정의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 수행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현아(201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61-76.
- 이현아, 박철, 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8.
- 이현우(201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조절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임애련(2015).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및 양육참여:아버지 기질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장온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장온정, 박정윤(2009).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 태도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21(2), 1-27.
- 장인실(201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자아정체감 연구 : 마르시아의 정체감 지위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1(4), 315-339.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8-103.
- 정수경(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채순옥, 한재희(2014).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결혼해체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15(5), 2053-2070.
- 천지향, 유영림(2018). 다문화 가정 한국 남편의 결혼 삶에 대한 이해. **한국지역 사회복지학**, 64, 115-156.
- 최경운(2016).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요구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 최정인(2015). 울산광역시 중국결혼 이주여성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최예지(2015). 다문화가정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윤정, 김계현(2009). 여성 진로 상담 관점에서 본 다중역할(일-가족) 균형의 구성 개념 및 측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찰. *상담학연구*, 10, 365-384.
- 한건수(2006). 연구보고 :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허주현(2015).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의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원.
- 한현희(2011). 미취학 자녀를 둔 일반가정 아버지와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여성가족부(2018).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 통계청(2018). 인구동향조사-2017년 혼인·이혼 통계.
- Bogdan, R., & Biklen, S. (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5th ed)*. Boston:Allyn & Bacon.
- Cialdini, Robert B. (2002). 설득의 심리학(이현우 역). 파주: 21세기북스, 252-254.
- Creswell, J. W. (2013).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Galvin, K. M., & Brommel, B. J. (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이재연 역). 파주: 형설출판사.
- Ganong, L.,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 Morris, D., & Collett, P., & Marsh, P., & O' Shaughnessy, M. (1979).

*Gestures: Their origin and distribution.* London : Jonathan Cape.  
Ruffell Smith, H. (1975). *Some problems of voice communication for international aviation, In A. Chapanis(ed.), Ethnic variables in human factors engineering.*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부록 1> 연구 참여자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김양화입니다. 이 연구자는 귀하에게 [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따르는 심리적 어려움 ]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여 본 연구 참여는 완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2. 귀하는 언제라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뷰는 1~3회 혹은 그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4. 귀하의 인터뷰는 녹음, 사진촬영, 비디오 녹화될 예정이며, 본 자료는 학술 연구목적 및 교육용으로만 사용되며,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될 것입니다.
5.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논문에 인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의 이름이나 기타 특징이 노출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6. 연구 도중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본 연구에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날 짜:                   년       월       일

연구자: 김양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김민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 ABSTRACT

# Comparison of Family Life of Two Korean Men Married to Immigrant Women

Yang Hwa Kim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Korean men married to migrant women experience and attach meaning to their experiences in family lif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were established in this study:

First, what does A man experience through his family life and how?

Second, what does B man experience through his family life and how?

Third,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n's family life?

Fourth, What is the meaning of the two men in their family life?

A compar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carry out the above research. Two Korean men married to a migrant woma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interviewed for three months from December 2018 to

February 2019. In summary, the research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Married to a migrant woman, Korean men were experiencing family life in four ways: experience in marriage, experience in marital relations, experience in children's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in social relationships. The study was a comparative case study, which drew variou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xperienced by Korean men married to migrant women in their family life, and also confirmed what meaning they had in their family life. In common, two centralities were revealed. The first was "a life that maintains existing values," and the second was a life that embraces." The differences also confirmed the two central features. The first was "recognizing a different culture" and the second was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s as follows. In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women married to Korean men were involved in the emotional state of women who were married to them and their involvement in raising their children. Recentl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Korean men married to migrant women,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in-depth access to individuals. The study focused on family life experiences of Korean men married to migrant women and was able to see what this experience meant. Furtherm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acceptance of other cultur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family life,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untry where migrant women come from can also be helpful. Furthermore, with Korea changing at a rapid pace and thus changing its values rapidly, the Korean couple is also unlikely to differ much from the posi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This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on how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and create new views.

※ Key Words : Immigrant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Cultural adaptation, Role conflict, Family life